



http://my.netian.com/~krbeauty

한국의 야생 동식물을 알고 떠나자

글_ 김인순 전자신문 기자 insoon@etnews.co.kr

때 이른 초여름 더위로 여름휴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여름 휴가지로 꼽히는 곳은 단연 산, 계곡과 바다 등이다. 올 여름 휴가는 한국의 야생 동식물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알고 떠나보는 건 어떨까.

우리 나라의 야생 동식물에 대한 꼼꼼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자녀와 이번 여름에 현장 학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들러봐야 할 사이트는 바로 '한국의 야생' (<http://my.netian.com/~krbeauty>)이다. 이 사이트는 동물의 생활, 새들의 생활, 식물의 생활, 곤충의 생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물의 생활을 보면 멧토끼부터 고라니, 고슴도치, 사슴, 다람쥐와 그 사촌들 등 17가지 동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 멧토끼는 다른 말로 산토끼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산에서 야생하는 토끼를 말한다고 한다. 사이트에 의하면 토끼가 처음으로 지구 위에 나타난 것은 1천만 년 전쯤의 일로 이때 에우리미루스라는 무리가 몽고 지방에 살았는데 이들이 지금의 토끼와 고슴도치, 두더지 같은 식충류의

양쪽 성질을 가졌던 토끼의 조상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한다. 또, 박쥐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올라와 있다. 흡혈박쥐라 해도 사람의 피는 빨지 않고 소나 말의 피를 빨아 먹으며 전염병을 옮기는 게 흡혈박쥐의 정체가 아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흡혈박쥐가 살지 않는다고 하니 휴가지에서 흡혈박쥐를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바닷가나 저수지 근처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은 민물도요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새들의 생활 코너에 소개된 도요새 정보에 따르면 도요새의 눈은 거의 주변 360도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눈이 머리의 옆에 붙어 있어 다른 새들에 비해 주변을 높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개펄 속에 있는 먹이를 잡아먹으면서도 주변을 살필 수 있어 아무리 노련한 조류학자도 도요새 무리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한다.

중부 지방이나 남쪽지방의 산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식물의 생활에 소개된 '나리'를 만날 수 있다. 나리는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로 참나리, 중나리, 당나리 등 120 가지가 넘는 꽃이 중남부 지방에 분포돼 자란다고 한다.

참나리는 7~8월 한여름에 꽃이 피어 여름 휴가지에서 그 아름다움을 구경할 수 있는 꽃이다. 나리는 한꺼번에 꽃이 확 피어버리는 자존심이 강한 꽃이라고 사이트

는 설명하고 있다.

두메양귀비란 꽃은 멀리 백두산에만 분포하는 꽃이라고 한다. 이 꽃은 7월에 백두산에서 볼 수 있는데 백두산으로 휴가를 가시는 분들은 한번쯤 눈여겨 볼 만하다. 특히 양귀비는 약용이나 관상용으로 심으나 아편을 만드는데 쓰여 우리나라에서는 재배가 금지된 식물이라고 사이트는 전하고 있다.

산이나 들로 가면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곤충이다. 곤충의 생활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난후 곤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더 큰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곤충의 생활코너에서는 귀뚜라미, 매미, 메뚜기, 방아깨비 등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곤충을 소개하고 있다. 매미는 조상이 5억5천만 년 전인 고생대 페름기 전기에 지구에 출현했다고 한다. 지구상에 3천 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27종이 있다고 한다. 7~8월에 우리의 귀를 시끄럽게 하는 매미는 참매미, 말매미, 유지매미, 쓰름매미 등이다. 올 여름 사이트에 잠시 들러 재미있는 한국 동식물의 정보로 무장한 뒤 휴가를 떠나는 건 어떨까.

글쓴이는 숭실대 정보통신공학과를 졸업 후 한국전파신문을 거쳐 2001년 이후 전자신문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다.